

2022년 2월

8호

CHA PHARM *IN*

약대생이 쓰는 약대 이야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편집부의 말

박지수 : 2021년 하반기 약대 소식을 담은 차팜인 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차팜인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참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손호정 : 차팜인 8호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약학대학의 다양한 소식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윤정 : 최대한 많은 소식과 재미는 내용들을 담았으니 재밌게 봐주세요ㅎㅎ 앞으로도 차팜인이 약학과 내에서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 : 차팜인 부원들과 교지를 기획할 때마다 부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매번 놀라곤 합니다. 이번 차팜인도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소통하는 차팜인이 되겠습니다!

신민철 : 2022 올해도 여러분의 행복한 소식들을 정성을 담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웅 : 새 호랑이해를 맞아 21년도 하반기 호를 발간합니다. 약학과 가족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왔으니 많관부~ :D

이승연 : 차약이 여러분의 관심과 부원들의 노력이 가득 담긴 차팜인 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약대 생활 이모저모를 담았으니 즐겁게 읽어주세요~!

이현지 : 올해도 차약인 여러분의 소식을 나누며 행복을 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참여 늘 감사드립니다!

김민정 : 학교생활의 요모조모를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정 : 2022도 차팜인은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소연 : 1년간 차팜인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즐거운 기사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임현식 : 21년 하반기 소식을 전해드리는 8호입니다. 22년에는 약대 모두 함께 한 활동을 기사에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지은 : 재미있는 소식을 가득 담은 차팜인 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모든 차약이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최우혁 : 올해 22년에도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더욱 풍성해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도교수

양영덕 ntsky0816@cha.ac.kr

편집장

이현주 (약학과 17), chapharmin@naver.com

편집팀

손호정 (약학과 17), 신민철 (약학과 18), 김민정 (약학과 19), 최우혁 (약학과 19)

취재팀

박지수 (약학과 17), 이승연 (약학과 18), 채지은 (약학과 19)

오윤정 (약학과 17), 원재웅 (약학과 18), 이소연 (약학과 19)

이현주 (약학과 17), 이현지 (약학과 18), 김소정 (약학과 19), 임현식 (약학과 19)

발행회차

2022년 8호

펴낸곳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01

목차 / 편집부의 말

02

[인터뷰] 김석호 학과장

03

[인터뷰] 장세용 학생회장

04

[인터뷰] 슬기로운 과대생활

05

[취재] 메타버스

06

[취재] 차팜데이 & 화코스

07

팜파라치

08

제주 환상자전거길 종주기

09

차약 앙케이트

10

송우미식회

11

CHAtten Tomatoes

12

삶의 질 상승템

김석호 교수님 약학과 학과장



1. 지난 12월에 차의과학대 약학과 학과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취임하신 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에 학과장이 되었는데 기말고사, 성적 입력, 입시를 거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정실의 새로운 조교가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어떻게 해야 일을 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나도 같은 시기에 학과장이 되어서 잘 몰라요'라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이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씩 이해하는 중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다이나믹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생 여러분과 교수님들 그리고 특히 차팍인의 협조를 구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담당 과목이나 현재 연구하고 계신 분야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목과 밀접한 의약화학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합성학과 관련해 천연물의 전합성을 하고 있고, 최근 수수께끼 나무로 알려진 맹그로브에서 분리된 Corniculatolide라는 화합물을 처음으로 합성하여 논문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합성된 화합물의 새로운 생리 활성을 찾는 연구를 김은희 교수님과 공동으로 진행해 화합물의 염증 저해 작용을 찾아냈습니다. 맥주에 들어있는 Xanthohumol이라는 성분을 합성해 colitis 치료 가능성을 밝혀 냈습니다. 신약 설계학에서 가르쳤던 phenotypic screening을 통해 조유희 교수님과 항생제 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arget-based screening을 통해 최현진 교수님과 ERRg 효능제를 개발하여 신경계 조절 물질을 개발 중이며, 양영덕 교수님과는 ANO1 저해제를 연구해 항암제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학과장으로 계시면서 앞으로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은 무엇인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큰 계획을 갖고 추진할 사안은 없습니다. 약학대학의 여러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 일들만으로도 벅차게 느껴집니다. 학과장으로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변수는 6년제로 전환되면서 새로 입학하게 될 MZ 세대와 어떻게 소통해 나가야 할지 그 부분이 제일 두렵고 기대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저희 약학대학의 비전인 글로벌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약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학생들을 보면 영어 성적이나 학과 성적은 좋은데, 모순되게도 이해력과 학습력이 부족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고력, 학습력 등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필요한 능력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필기 자료나 수업 녹음 등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방법들 대신, 보다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기 삶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중에는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하니 고민이 있다면 지도 교수님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5.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되어 1학년과 3학년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학생 수도 많아지고 커리큘럼에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커리큘럼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몇 년간은 교수님들 강의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건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 테니 어떤 다이나믹한 일이 생길지 솔직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1학년과 3학년의 관계도 걱정되고, 6년제 학생들은 현재 학생들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교수님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딪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예상을 빚나가는 일들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6. 그런 변화들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재학생들에게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후배들이 여러 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에게는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을 가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무엇보다 선후배 간의, 교수님들과의 화합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대에서 인생을 끝까지 함께할 멋진 선후배를 만나고 존경할 만한 교수님도 찾아 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약학과 12대 장세용 학생회장

Q1.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학기 초에 다른 약학대학 학생회장을 준비 중이던 친구의 권유로 학생회장에 관심을 가졌었고 동기들에게 '해볼까?' 말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11대 학생회장과 인사를 나누어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학기가 되고, '학업도 바쁜데 학생회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점점 출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학우들과 선배들은 제가 하는 줄 알고 있었고 몇몇 학우가 하지 않을 것인지도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학생회장 자리에 어울리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는 '제가 학생회장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부학생회장의 권유를 받게 되었고, 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주는 학우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Q2. 학생회 이름이 'charming'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CHArming은 차의과학대학교의 CHA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매력적인", "멋진"의 뜻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단절되고 선·후배 간 친해지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학우 간의 화합을 목표로 정했고 그런

이미지를 가진 학생회가 되고자 부르기 쉽고 귀여운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Q3. 6년제 전환과 함께 1학년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회에선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나요?

새로운 약학 입시 개편으로 인해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기존 재학생들과 대화 코드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과 3, 4학년이 서로 주제가 통할 수 있는 기초과목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존 3, 4학년 편입생은 다양한 전공을 가졌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초과목에 대한 공부법도 다양할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많은 학우와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11대 학생회에서 진행했던 차친프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Q4.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꼭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나요?

모든 학우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거나 인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학생회에 문의하고 싶지만 어색하거나 편하지 않아 하는 학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사만 나누는다고 저한테 연락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연락을 줄 수 있는 학생회장이 되려 합니다.

Q5. 임기가 끝난 후 어떤 학생회로 기억에 남았으면 하나요?

신뢰할 수 있는 학생회로 남고 싶습니다. 학생회 일원들 모두 처음 해보는 활동으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우들의 의견에 최대한 귀 기울이고 반영하여 고쳐 나가려 합니다. 그 결과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한 행사나 일을 진행하더라도 고쳐나갈 것이라고 학우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생회로 남고 싶습니다.

Q6.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번마다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 중에서도 자신과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은 많습니다. 선배로서 존경하는 마음과 후배로서 귀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후배 간의 어색해하는 장벽을 저희 CHArming과 함께 부숴보도록 합시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화이팅!

즐기로운 과대생활

지난 학기를 책임진 과대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1년 2학기는 정말 오랜만에 3,4,5학년이 함께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학기였다.

2021년 2학기 과대표를 맡아 고생해준 각 학년 과대표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학기연속과대!

3학년과대표 양하정 학우



Q1. 2021년 2학기 과대표로 맡은 임무를 해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학기 과대표를 맡게 된 계기가 있나요?

A1. 사실 처음에 큰 생각을 가지고 지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 랜덤으로 과대를 선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보다는 제가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그렇다면 혹시 다시 과대표를 맡을 생각도 있으신가요?

A2. 네, 실제로 제가 4학년 1학기 과대표도 맡게 되었습니다. (웃음)

Q3. 과대표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3. 계획한 행사를 동기들이 즐겁게 참여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1학기 때는 마니또 행사, 동기들끼리 차친프 행사가 있었고, 2학기 때는 어릴 적 사진을 제보받아서 사진의 주인공을 맞추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Q4. 동기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A4. 저도 사람인지만 항상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 저와 부과대가 기획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항상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Q5. 입학 후 첫째,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5. 차팸데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서 직접 가서 보진 못했지만, 동기 몇 명과 모여서 다 같이 차팸데이를 즐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경품 추첨이었습니다. 내년엔 꼭 제가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Q6. 동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6. 내 건강이 우리 모두의 건강입니다. 다같이 건강합시다!

Q7. 동기들에게 '최고의 과대표'로 칭찬받고 있다고 하는데, 한해를 되돌아보며 본인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A7. 하정아, 큰 문제 없이 일 년간의 과대표 업무를 끝낸 것 너무 대견해. 부과대인 태희와 수현이도 정말 고마워!

과대만도합3번!

4학년과대표 김은솔 학우



Q1. 2021년 2학기 과대표로 맡은 임무를 해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학기 과대표를 맡게 된 계기가 있나요?

A1.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원자가 없어서 1학기에 과대표를 맡았던 제가 다시 과대표를 맡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여 2학기에도 과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Q2. 그렇다면 혹시 다시 과대표를 맡을 생각도 있으신가요?

A2. 이미 과대표를 다시 맡게 되어서... 다다음 학기에도 다시 과대표를 맡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Q3. 과대표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3. 교수님들께서 수고했다고 말씀해주실 때나 동기들이 고마워 또는 "수고했어"라고 말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Q4. 과대표로서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A4. 학기 초에 교재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대면/비대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교재를 어떻게 나눠주어야 할지 고민했던 일이 힘들었습니다.

Q5. 과대표를 굉장히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5.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첫 학기에는 과대표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과대표를 하게 되었고 다음 학기부터는 보람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Q6. 지금까지 2년간의 약대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6.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는데 첫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던 이번 학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7. 마지막으로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A7. 2학기 동안 잘 따라줘서 고맙고 다음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A1. 딱히 계기 같은 건 없었고 부과대를 맡아준 김성미 학우와 함께 일해보자 얘기가 되어서 과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Q2. 그렇다면 혹시 다시 과대표를 맡을 생각도 있으신가요?

A2. 지난 한 학기동안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ㅎㅎ 다시 과대표를 맡을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Q3. 과대표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3.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Q4. 과대표로서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A4. 5학년 2학기가 실습 사이트 선정, 차팜데이나 화코세 등 챙겨야 할 일정과 행사가 많아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놓치면 저희 학번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니까 일정을 빠짐없이 챙겼는지 계속 신경써야 하는 일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Q5. 다음 과대표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A5.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이나 마음처럼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빨리 털어 넘기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Q6.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A6. 한마디에 담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일이 있었지만, 과대와 부과대를 믿고 잘 따라와 준 덕분에 한 학기 잘 마친 것 같아 고마운 마음입니다. 남은 1년도 모두 건강하게 보내서 함께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파트너였던 김성미 학우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전합니다.

Q7. 이제 포천을 떠나게 되는데 지난 3년간의 약대 생활 중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7.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3학년을 빼고 4, 5학년은 동기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많이 못했던 점이 아쉽네요. 그게 아니었다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동아리 활동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Q8. 포천에 남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A8. 제가 누군지 모르실테지만ㅎㅎ 포천을 떠날 때가 되니 그래도 아쉬운 것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대학생활 공부만 하지 마시고 시간 되는데 하고 싶은 것들도 하시면서 좋은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에서의 마지막 학기!

5학년 과대표 오운정 학우

Q1. 2021년 2학기 과대표로 맡은 임무를 해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학기 과대표를 맡게 된 계기가 있나요?



집에서 학교 투어가 가능한가요?

“프로메타진” 은 가능합니다!

지난 2021.06.30 - 2021.08.31, 차의과학대학교에서 교내 메타버스 경진대회가 있었다. “메타버스”라는 핫한 소재답게 약학과를 비롯한 교내 학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는데, 그중 최우수상(1등) 수상팀인 “프로메타진” 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프로메타진” 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1. 약학과 4학년 네 명이서 모인 메타버스 제작팀입니다. 팀명은 ‘promethazine’이라는 의약품에서 영감을 얻었고, 과학관과 약학과의 모습을 ‘프로’답게 메타버스로 구현해보겠다는 저희의 포부가 담겨있습니다. 이주현 학우가 설계, 이민수 학우가 지형지물과 조경을 담당했으며, 이진우 학우가 홍보 및 영상편집, 조소정 학우가 팀장을 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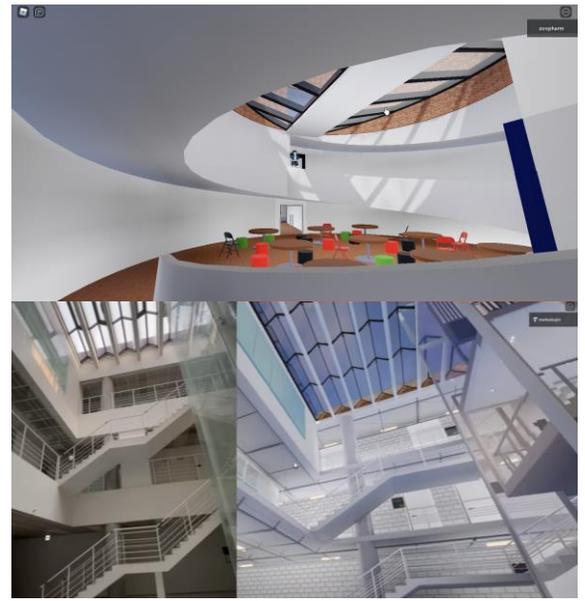
Q2. “2021 1회 BUILD IT 메타버스 경진대회”에 어떤 창작물로 참가하셨나요?

A2. 로블록스(Roblox)플랫폼으로 차의과학대학교 과학관을 제작 후, 홍보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프로메타진’을 검색하시면 가장 최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로블록스” 플랫폼으로 과학관을 구현하실 때, 가장 신경써서 작업하셨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A3. 먼저 실제와 움직임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 방마다 문을 만들고 캐릭터가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열고 닫히도록 만들고 싶었는데, 문을 단순히 해당 위치에 설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의 작동과 유사한 움직임을 설정하기 위해 물리엔진을 이용해야 했고, 이를 위해 다 같이 모여 관련 사이트를 찾아 공부하고 다양한 물리엔진 수치를 적용해가며 분석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결국 성공했을 때 정말 기뻐던 기억이 납니다.

또 신경 썼던 부분은 과학관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의 비율을 메타버스 내에서 온전히 살려야 하는데, ‘이주현’ 학우가 Autocad, sketchUP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적인 인테리어/익스테리어 틀을 잡아주었습니다. 로블록스 캐릭터가 키는 작지만 좌우 폭이 널찍하게 생겼기 때문에 주변 오브젝트들도 이를 반영한 비율로 재조정했습니



로블록스로 구현한 차우라홀과 과학관 내부 모습

다. 특히 차우라홀의 경사도와 원형 난간을 동시에 구현할 때 기존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구글링으로 여러 애드온 프로그램을 깔고 방법을 익혀 구현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과학관 입구 위쪽의 창문도 유리와 창틀을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습니다.

Q4. 제작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4.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사용과 조작법을 익히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건물 내부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하데 도면과 사진만을 보고 작업하기엔 세세한 정보가 부족해서 힘들었습니다. 처음 건물 틀을 잡았을 땐, 흰 벽들뿐이어서 방 구분조차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도 애를 먹었는데, 3D 골격구조를 sketchUP 프로그램으로 만든 후, 로블록스로 불러왔는데 처음엔 캐릭터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구글링으로도 관련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서 결국 설정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며 해결했습니다.

Q5. 2022년에도 만약 메타버스 경진대회가 있다면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A5. 상금이 좀 더 오른다면 참가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



캠퍼스 투어를 해주는 캐릭터 '차약이'와 직접 제작한 의상

메타버스(metaverse)가 뭔데?

Q6. 5G와 같은 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쳐 가상현실 플랫폼이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데 약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A6. 비대면이 권장되는 요즘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영업/마케팅 분야와 임상 분야에서 메타버스는 분명한 이점을 가집니다. 의사 및 약사를 원격으로 만나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한 채 디테일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상시험에서의 메타버스 도입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미 다수의 제약회사가 원격 임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비대면으로 사람을 마주한다는 것 이상의 기대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가상의 약학관에선(최종판에선 제거되었지만) 실험실에서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솔마당에서 자동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선 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곳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요. 의료계를 예를 들면, '뷰라보'라는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환자를 진단, 처치, 소통하면서 의료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업계도 마찬가지로 약학 실습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치료와 관련된 PBL 학습이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진다면 디지털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실험 관련 기초 테크닉을 메타버스 랩(Lab)에서 연습할 수도 있고, 독성이 강해 위험도가 큰 병원균을 배양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생약을 3차원 공간에서 돌려보며 형태학적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습을 넘어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엔 아직 제도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원격의료라는 큰 이점을 가지지만 현 의료법에 따라 원격진료는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발달에 앞서 실제와 같은 감각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디바이스의 연구 및 공급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임현식 기자

메타버스(Metaverse). 'Meta'와 'universe'가 합쳐진 단어로 뜻을 그대로 보자면 추상적 세계이다. 아직 '메타버스가 무엇이다'라고 뚜렷하게 정의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으로 말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특히 코로나와 주식열풍으로 인해 급격히 알려졌다.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 닐 스티븐슨의 SF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이다. 소설에서는 고글, 이어폰과 같은 장비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자신의 아바타를 설정하는 것부터 건축, 사회, 경제활동까지 모든 것이 자유롭다.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단어는 '자유'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게임보다 훨씬 높은 자유도를 가지며 자신이 설정하는 것이 곧 목표가 된다. 또한 메타버스 내에서 유저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마치 실제로 만난 것처럼 대화하고 소통한다. 특히 팬데믹 이후 동물의 숲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분 것에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제페토에서 구현한 병원 (출처: 일산차병원 인스타그램)

일산 차병원에서 개원 1주년을 맞아 제페토에 가상 공간을 열었던 모습이다. 아바타를 통해 병원 내 다양한 공간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고 한다. 메타버스를 더 이상 가볍게 즐기는 엔터테인먼트로만 보기는 어렵다. 기업, 병원, 가수의 마케팅 등 비즈니스에도 활발하게 이용되며 점점 일상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분명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고 메타버스 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약업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빠르게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차의과학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로 가면 지금도 메타버스 학교 투어 영상들을 볼 수 있다. 약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팀도 프로메타진 이외 다수 있는데, 우리 학우들이 전공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인터뷰였다.

차팜데이 & 화이트코트세레모니

차약인의 축복 속에 3 년간의 포천 생활을 마무리하는 예비 약사들



2021년 11월 5일 화이트코트세레모니와 차팜데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작년과 동일하게 화이트코트세레모니와 차팜데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COVID-19 사태로 인해 현암 기념관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에는 일부 인원만 참가하였고, 그 외 인원은 송출된 ZOOM 영상을 통해 북 카페 및 자택에서 참여하였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 화이트코트세레모니, 2부에 차팜데이가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내외빈이 직접 참석하였다. 나영화 학장님께서 국민의례 및 개회사를, 김동의 총장님께서 축사를 말씀해주셨다. 포천시약사회 김명수 회장님, 성남시 약사회 한동원 회장님, 분당차병원 송인숙 약제부장님, 일산차병원 송헌정 약제팀장님께서도 비대면으로 영상을 보내어 행사를 축하해주셨다.

다음으로 17학번 재학생들의 2021년 화이트코트세레모니가 진행되었다. 가운 수여에 앞서 17학번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시청하였다. 최근 유행하는 MBTI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공감을 통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후 행사의 백미인 가운 수여식이 시작되었다. 가운을 입고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읊는 학생들의 표정에 약사로서 가지는 책임감과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떠올랐다. 선서가 끝나고는 모두 강당 밖으로 나가 기념촬영을 했다. 오늘을 위해 단정히 차려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고, 함께한 교수님들과 선후배 모두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김은솔(18), 송유심(18), 신민철(18) 팀, 강민기(19) 학우도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2부 차팜데이 행사는 진로체험으로 시작하였다. 대학원과 제약회사 및 병원을 주제로 인터뷰한 영상을 시청하였다. 김애리 교수님 연구실 소속 안성현(14) 선배님, 조혜영 교수님 연구실 소속 조석진(15) 선배님께서 대학원 생활의 이모저모에 대해 소개해주셨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소연(14) 선배님께서 병원 약사에 대해, SK바이오사이언스 해외RA 김수연(15) 선배님께서 제약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셨다. 진로체험을 통해 재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지식을 얻을뿐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내 동아리인 <하늘소망>에서는 이날의 행사를 축하하는 녹화 영상을 보냈다. 합창의 선율과 학우들을 축복하는 동아리원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영상이었다.

1부와 2부의 사이에는 Break Time을 가지며 경품 추첨을 하였다. 올해는 아이패드, 갤럭시 워치, 프린터, 와플 메이커, 커피 머신 등 300만원 상당의 경품이 준비되었다. 프린터는 유정위(17), 김지우(19) 학우가, 갤럭시 워치는 서지연(18), 문선주(18), 박병욱(19) 학우가 차지하였다. 대망의 아이패드는 이민영(19), 민은기(17) 학우가 당첨되어 많은 부러움을 샀다. 이번 해에는 교수님들의 사인본과 조윤희 교수님 수업 퀴즈 면제권처럼 재미있는 경품도 추가되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17학번 정서경-

Q1. 화이트코트세레모니에 참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처음 동기들을 만나 입학식을 했던 때가 아직까지 생생한데 어느새 3년이 지나 화이트코트세레모니를 해서 정말 신기해요! 특히 가운을 입고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하니 약대생으로서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싶기도 했고요 ㅎㅎ. 또 앞으로 실습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떨리면서도 기대감이 가득했던 거 같습니다.



화이트코트세레모니가 끝난 후 학술 포스터 심사 결과 소개 및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해, 학술 포스터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상에 게재되었다. 심사 결과 배주현(18), 기세윤(18) 학우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설(17), 이소연(18) 팀,

차팜데이 & 화이트코트세레모니

Q2. 예비 약사로서 앞으로의 다짐이 있나요?

현재 제가 실습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고 느끼는 게 정말 많은 거 같아요. 약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직업정신이 투철한 약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멋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또, 졸업 후에도 저도 그런 믿음직한 약사가 되고 싶습니다.

Q3. 그 외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은?

동기분들 후배분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모두 하루하루 더 성장하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8학번 기세윤-

Q: 우수 포스터 상을 수상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약학비전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세포실험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친한 친구와 함께 약연입을 신청하여 흥미롭게 실험할 수 있었어요. 사실 약연입 할 때는 포스터 만들 생각 없었는데 일일 보고서를 열심히 작성하다 보니 가까워져서라도 포스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두 양영덕 교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연구 프로젝트 기회를 주시고, 랩 미팅 때 회의하며 실험 방향도 잘 이끌어주셔서 포스터의 아웃라인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연구원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차근차근 설명해주시고, 옆 랩실 조교님께서도 잘 챙겨주셔서 실험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ㅎㅎ 답이 정해져 있는 공부 아니라, 실험자가 직접 원인과 결과를 다방면으로 찾아 나가는 과정이 새로웠어요!! 약연입 많이 하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실험 기회 주신 양교수님 최고 ~ 약물 만들어 주신 김석호 교수님도 최고~

이현지 기자

-18학번 배주현-

Q: 우수 포스터 상을 수상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실습 시간에 배웠던 실험이 흥미롭고 알찬 방학을 보내고자 약연입을 신청했습니다. 양영덕 교수님께서 ANO1 채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고 조교님께서도 저희에게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더욱더 재밌게 약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파이펫팅도 미숙하고 엑셀 파일도 쓸 줄 몰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희 조교님과 옆 랩실 조교님께서 도와 주셔서 실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는 우울하기도 했지만,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일 연구보고서를 쓰면서 처음에는 실험기구 이름도 몰라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끔 적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기억이 잘 남아서 포스터 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약연입 기회를 주신 양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석호 교수님께서 주신 약물 헛되이 쓰이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조교님들 최고최고! 동계 약학연구입문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자아자! 다른 후배분들도 기회가 되면 약연입 꼭 신청하세요! 방학을 재밌게 보낼 수 있어요!! 방학 때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지만 끝나고 보면 너무 보람차고 재밌고 뜻깊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ㅎㅎ

-19학번 정찬희-

Q: 행사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무엇보다 선배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제약회사나 병원 등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와 준비하는 팁을 전해주셔서 진로 계획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포천은 어디에나 눈이 있다

hamparazzi

약학과 타임라인



11월 5일, 현암기념관에서 진행된 화이트코트세레모니.
17학번 학우들이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실습지로 떠나는 설렘과
예비약사로서의 책임감이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포천에서의 마지막 17학번 단체 사진.

정말 오랜만에 해솔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과감 나왔을 때, 벚꽃 폼을 때, 야외수업 할 때 등등..

3학년 때 해솔마당에서 종종 단체 사진을 찍었던 때가
기억나는 날이었습니다. :)



익명의 동기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

중간고사 기숙사 단기입사 때, 코코몽과 룡패당만 달랑 들고

입사했다는 18학번 유가인 학우의 모습입니다.

코코몽 인형은 원래 저렇게 납작한건지 아니면, 너무 깔고 누워서
납작해진건지 모르겠지만 때가 아주 많이 났다고 합니다 ㅎㅎㅎ



차대 약대의 유일한 밴드 동아리, 민트밴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팀의 첫 연습 기념사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꼭 동아리 공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포천은 어디에나 눈이 있다 hamparazzi

약학과 타임라인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차팜데이.
역시 차팜데이의 꽃은 경품 추첨이겠죠?
현장에서 아이패드를 노리고 있는 하이에나들입니다!!
사진 속 18학번 친구들 중
아이패드의 주인이 나왔을까요????!!

2학기 종강기념으로 19학번 친구들 4명이
일주일간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감귤밭에서 감귤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고
방학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2학기 마지막 시험을 끝내고 종강을 맞이한
19학번 학우들의 신난 모습입니다.
올해 과학관 공사 때문에 미래관에서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단체사진 배경이 미래관인 모습이 생소하네요 :)
모두 아이패드와 전공책은 잠시 멀리하고,
신나게 방학을 즐겨주세요~!! ㅎㅎ



박지수 기자

제주 환상 자전거길 종주기



21년 초, 3학년 말 즈음 잃어버린 초심과 헤이해진 정신 상태(?)를 단련하기 위해 무작정 비행기를 예약하였다. 필요한 건 간단한 배낭과 휴대폰. 옷가지도 많이 필요 없다. 최대한 가볍게 다녀오는 것이 여행자의 미덕이라 배웠다. 시기상 2월 말이었으나 제주도의 따스한 날씨에 한창 낮에 달릴 때는 반팔도 더웠다. 그러나 밤에는 추우니 꼭 보온이 가능한 트레이닝복 또는 경량 패딩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 드린다. 땀을 흘린 뒤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체온이 내려가면 심각한 탈수와 탈진이 오기 쉽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고 제주 환상 자전거길을 다녀오시겠다는 분들을 위해 팁을 몇 개 더 드리고자 한다.

제주 1일차 [거리 69.29km 누적상승고도 364m 총 시간 4시간 4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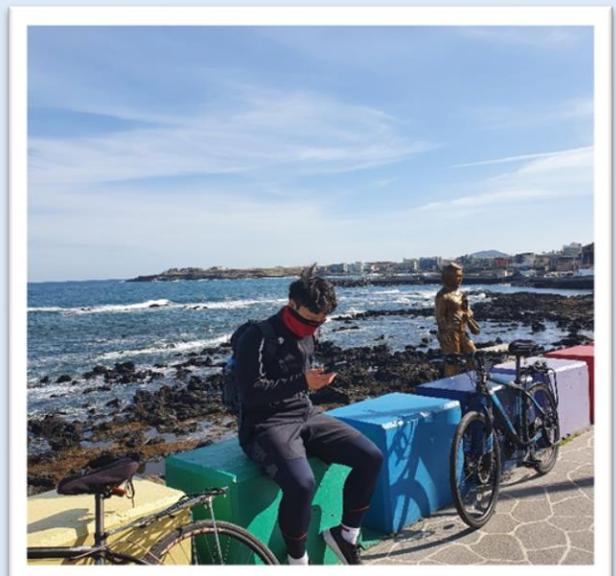
제주시 일도동 소재의 자전거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48시간 동안 대여하였다. (3만원) 정오쯤 제주항 연안 여객 터미널에서 출발해 용담해안도로를 달리며 여유 있는 체력을 과시하며 호기롭게 출발했다. 제주시부터 용두암을 거쳐 애월읍을 거쳐 송악산 근처까지 굽직한 제주도의 관광지를 거처나가니 제주의 바다를 만끽하였다. 날씨의 탓도 있겠지만 이때 보는 제주 바다의 느낌은 푸른색과 비취색의 느낌이었다. 첫날이니 만큼 바다와 관광지를 즐기며 라이딩이 가능했다. 다만 관광지에 인접하므로 차량과 사람들이 많아 주의를 기울이는 라이딩이 필요하다. 이후 한림 지역부터 송악산 이전까지는 한적한 교외 지역이므로 해변, 바다, 유채꽃밭을 보며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다. 송악산, 산방산을 지나기 전에 숙소를 잡아 하루 휴식하였다.

Tip (초보자 기준)

- ① 평소에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는 분이라면! 특히 로드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꼭꼭 자전거 젤리안장 쿠션과 사이클용 패드 바지를 구비하고 가도록 하자. 만약 다음 아이템 없이 타고 난 다음 날이라면 말 못 할 어마어마한 고통이...
- ② 제주 환상자전거길은 섬 전체를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안내표지판 보고 라이딩하기 좋다. 시계방향 라이딩은 안내표지 조성이 잘 되어있지 않아 매번 핸드폰을 보며 찾기 어려우니 비추천.
- ③ 언제 어디서나 실력에 맞는 라이딩을 추천드린다. 여유 있게 가고자 한다면 4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제주를 만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④ 자전거 여행 이후 관광 일정이 있어 따로 짐을 맡기고 싶으시다면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올레꾼 짐보관소를 이용하시면 공항보다 저렴하게 짐을 맡길 수 있다.
- ⑤ 혹시나 자신의 자전거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은 비행기 수하물로는 자전거 분해 후 박스포장이 필요하다. 비용은 약 2만~3만원. 다른 방법은 고속버스에 적재 후 목포까지 이동한다. 그 후 목포-제주 배편으로 2만원 정도로 이동 가능하다. 분해는 필요 없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1일차 라이딩 코스





2일차 라이딩 코스

제주 2일차 [거리 62.40km 누적상승고도 616m 총 시간 5시간 22분]

라이딩에 익숙하지 않아 피로가 체감되는 이틀날. 산방산부터 시작되어 중문까지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오전에 주행하였다. 오르막이 있다면 내리막이 있다는 그 당연한 이야기가 이리도 와 닿을 수 있을까 싶은 구간이다. 오르막은 정말 힘들고, 내리막의 속도감은 꽤감 그 자체이다. 이후 남원부터는 일주동로를 만나 일반도로 주행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해변도로를 달리는 데 표선 해변을 지나는 라이딩 코스는 한산한 인적과 함께 바다와 상당히 인접하여 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다. 고즈넉한 시골 풍경과 남쪽의 검은 현무암 해변이 선사하는 이국적인 느낌은 진정한 의미의 힐링을 선사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라이딩이 늦어져 성산 근처에 있는 숙소에도착하기 위해 저녁까지 라이딩이 이어져 자전거용 랜턴이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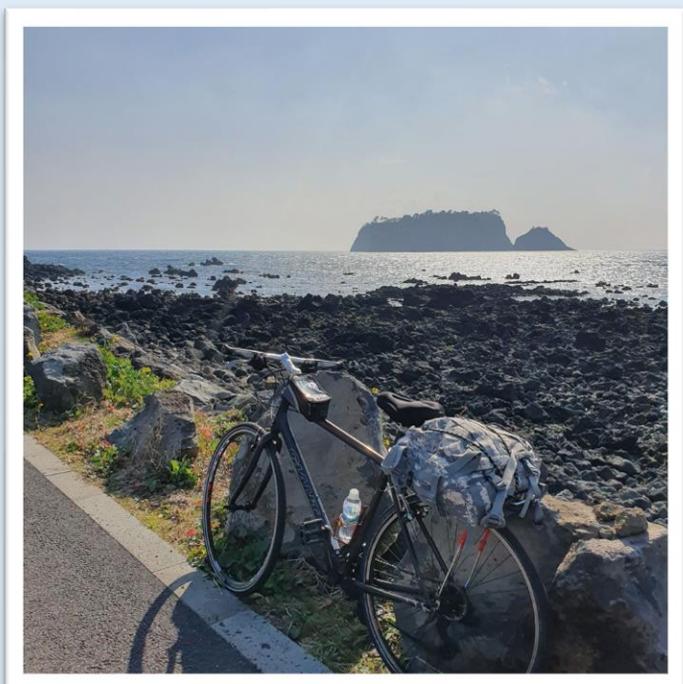


3일차 라이딩 코스

제주 3일차 [거리 52.59km 누적상승고도 346m 총 시간 3시간 58분]

마지막 날. 오전에 일출을 성산일출봉에서 보는 느낌은 새로웠다. 그 누구에게라도 꼭 한번은 직접 보라고 전해주고 싶다. 일출의 타오르는 해로부터 힘을 얻어 출발하였으나 기상악화와 대여시간의 압박으로 내륙코스(지름길)와 해변도로를 번갈아가며 라이딩을 하였다. 그러다가도 라이딩 도중 휴식을 위해 들어가 본 건물이 너븐숭이 4.3 기념관이어서 제주의 아픈 역사를 생각해보는 또 다른 여행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었다.

함덕부터 이어지는 맑디 맑은 제주의 바다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며 마지막 제주 환상자전거길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제주시에 진입해서 체인이 아예 탈출(!)해버리는 바람에 자가 수리에 30분을 소요했었다. 꼭 라이딩 전에는 자전거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현명한 차약인, 라이더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게 여행의 묘미이긴 하니깐.



코로나19 감염증이 퍼진지 2년이 다 되어 간다. 집 안에 갇혀있는 일상이 지친다면 자전거로 훌쩍 떠나 보는 건 어떨까? 생각보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적어서 놀라고, 렌트카로 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제주의 바람과 햇살, 천혜의 자연 환경에 가슴이 뻥 뚫려 두 번이나 놀랄 수 있다.

차약 앙케이트



육아 난이도가 가장 높았을 것 같은 동기는 누구인가요?



22.2%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 같은 자녀 육아하려고 생각해보면... 음... 맞는 것 같네요!

17 한승훈



41.2%

(수정) '육아를 가장 잘 할 것 같은 사람' 으로 보기를 수정합니다.

18 이건호



42.1%

이 영광을 올
엄마아빠에게♥

19 김민경



과제를 가장 빨리 제출할 것 같은 동기는 누구인가요?



27.8%

지금도 과제에 허덕이고 있는데 성원에 힘입어 끝내보겠습니다. 17 차약이들 실습 화이팅!!

17 주다은



29.4%

J라서 계획은 열심히 세웁니다^^

18 김은솔



42.1%

앗 꼭 그렇지는 않지만 ㅎㅎ 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9 박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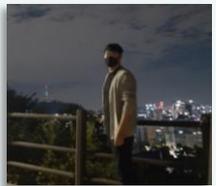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동기는 누구인가요?



50%

민밴 보컬로서 명성을 잃지 않았네요

17 이소현



29.4%

%가 다소 아쉬운 감이 있네요~? ㅎㅎ^^

18 이지훈



78.9%

포천 째효신 팬클럽 모집합니다^_^

19 김예안



송우리에서 가장 잘 놀 것 같은 동기는 누구인가요?



22.2%

동기들 없는 송우리... 앙꼬 빠진 찐빵과도 같은 것

17 최수빈



23.5%

송우리는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18 신민철



36.8%

의외네요...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내년에는 더 열심히 놀겠습니다 ㅎㅎㅎ

19 임하정

선배들이 알려주는 포천맛집

송우미식회



위치

◆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전길 237 - 1

총평

◆ 맛집별점: ★★★★★

◆ 알아둬야할 점: 월요일 휴무, 일요일 라스트 오더 4시, 주차 가능

◆ 포천의 노을이 보랏빛과 핑크빛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곳 포천 어느 달에서 사방에 있는 유리창 너머로 포천의 예쁜 노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해를 보면서 맛있는 파스타를 먹고 있으면 한편의 영화 속에 있는 느낌일 것입니다. 풍경에 뒤처지지 않는 파스타 또한 일품입니다. 매콤한 마늘 오일 소스에 통통한 새우와 애호박을 얹어 한입 먹어보면 이제껏 먹어보지 못한 파스타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고기 토마토 파스타의 토마토소스 또한 전형적인 맛이 아닌 어느 달만의 특별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매뉴

◆ 소고기 토마토 파스타 _18.0

◆ 갈릭 쉬림프 파스타 _18.0



위치

◆ 양주시 화합로 1970

대표매뉴 ◆ 아메리카노 _5.0 ◆ 힐링볼멍 구이메뉴 _별도



총평

◆ 맛집별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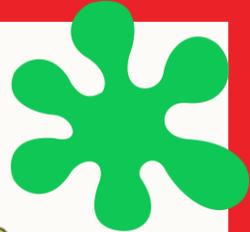
◆ 알아둬야할 점: 장작볼멍을 즐길 수 있음, 주차 가능, 차로 이동 필요

◆ 포천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 보는 것은 흔치 않는 경험일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붉은 포천의 모습을 사진으로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저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며 마시는 커피 한잔은 모든 걱정을 잊게 해 줄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들 때면 풍경 앞에 앉아 여유롭게 차 한잔을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겨울밤,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타들어가는 장작에 둘러 앉아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현주 기자

CHAtten Tomatoes®



드라마/영화 추천

CHAtten Tomatoes

길고 긴 겨울방학을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다면? 코로나로 영화관 가기가 무섭다면? 넷플릭스 메인 화면을 틀어놓고 고르기만 10분 넘게 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차악이들을 위해 차팜인 기자들이 엄선한 작품. 넷플릭스 알고리즘보단 차팜인 기자들의 추천을 믿고 보세요~ 준비물은 따뜻한 이불과 꿀 한 바구니!

1 오윤정 기자 추천작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전통적인 TV 드라마의 형식으로 녹여 넣은 시리즈물. 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긴 시리즈물로, 완다비전 - 팔콘과 윈터솔저 - 로키 순서로 정주행하는 것을 추천.



마블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완다비전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전통적인 tv 드라마의 형식으로 녹여 넣은 작품이다. 슈퍼히어로 완다와 비전이 마침내 결혼해 웨스트뷰라는 마을에 정착해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지만, 언제부터인가 현재의 삶이 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면서 생기는 이야기.

총 9부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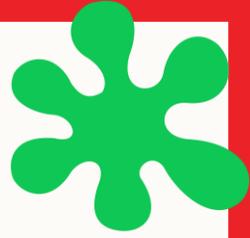
디즈니+에서 방영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의 두 번째 작품이자 캡틴 아메리카 실사영화 시리즈의 드라마.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히어로의 삶을 내려놓고 살아가던 팔콘과 윈터 솔저 앞에 나타난 제2의 캡틴 아메리카와 '블립 사태'를 재현하려는 정체불명 슈퍼 솔저 군단의 위협 속 방패의 진정한 주인이 결정되는 이야기.

총 6부작. ★★★★★☆



<어벤져스:엔드게임>에서 탈출에 성공한 '로키'가 세상의 시간을 어지럽힌 죄로 TVA에 체포된 후, 살기 위해 또 다른 시간 속 '로키'를 잡아야 하는 미션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 이야기의 짜임새나 흐름, 앞으로의 세계관에 끼칠 영향력과 전개 등을 종합했을 때 만족스러운 시작이라는 평가. 주연 3인방인 로키, 실비, 모비어스 역을 맡은 배우들의 연기력이 몰입도가 상당하고 배역 역시 세계관에 매력적으로 잘 녹아들어 후속작에서의 등장이 기대되는 평이 많다.

총 6부작. ★★★★★☆



2 원재웅 기자 추천작

다크(DAR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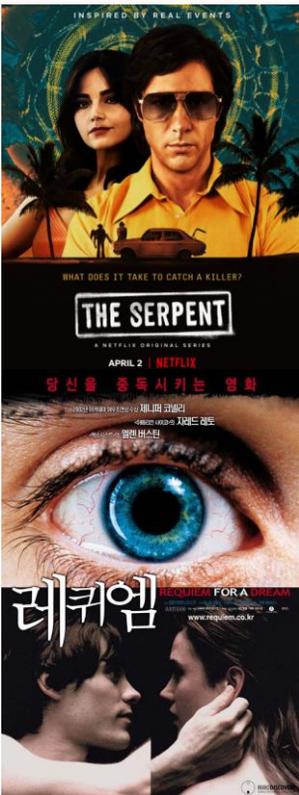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SF 스릴러 장르로, 뻘한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뻘하지 않은 독일 드라마이다. 시즌 3로 완결이 나 있어 새로운 시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소소한 장점이 장점이라면 장점. 다만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 창작물과 다르게 이야기의 호흡이 매우 길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시청한다면 복잡하고 예상할 수 없는 전개로 겨울방학 중 며칠은 가볍게 날릴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최고의 오리지널 드라마 중 하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Like Father, Like Son) 2013 ★★★★★

‘아무도 모른다’로 유명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중 하나. 단순히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 옳은가를 넘어, 가족이 가족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준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거장답게 실제 있을법한 가족들의 이면을 몰래 엿보듯 사실적이고 서정적인 서술을 보여준다. 고레에다 감독 작품의 특징인 아역의 준수한 연기 또한 관람 포인트. 새해의 시작은 가족 영화로 따뜻하게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3 이소연 기자 추천작



더 서펜트

넷플릭스의 실화 기반 범죄 드라마. 1970년대 중반 태국, 네팔 등 국가 등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찰스 소브라즈의 이야기이다. 손에 꼽힐 정도로 재밌고 몰입도 높은 드라마!

강추 ★★★★★

레퀴엠

마약에 중독되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영화다. 감탄이 나오는 연출과 한동안 여운이 남게 되는 영화. 왓차에서 시청 가능.

강추 ★★★★★

차약이들의 잇-템 大공개 삶의 질 상승템

블루투스 키보드



필기와 문서작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입니다. 아직 안 산 동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인생네컷 앨범



흩어져 있는 인생네컷 정리가 어려웠는데, 이 앨범을 사고 난 뒤로 추억을 차곡차곡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휴대폰 거치대



밤에 넷플, 유튜브 보기 최고의 아이템! 가만히 보다 보면 잠이 스르르zzz

2단 독서대 & 태블릿 거치대



시험기간에 노트북, 아이패드를 올려놓는 용으로 활용도가 높아요. 우리 모두 거북목 예방합시다!

'굿슬립' 어플



잠이 안 올 때 틀어두기 좋은 수면 유도 어플이에요. 이 어플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꿀잠 가능~)

비타민 젤리



비타민은 물이랑 챙겨 먹어야 해서 귀찮았는데, 젤리는 그냥 아침에 두 개씩 집어먹으면 돼서 편해요~ 무엇보다 맛있어서 '복약순응도'가 높아진답니다!

차팜인을 후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차팜인 8호 즐겁게 보셨나요? 차팜인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발간을 이어 가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카카오뱅크 3333-04-9615429 (예금주: 오윤정)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 알뜰히 사용하여 더 좋은 지면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harmin@naver.com / 010-4163-7408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약학대학 소식지 <CHA PHARM IN>은 차약인들이 직접 차약인들의 소식을 담아, 차약인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약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짧은 수필, 나누고 싶은 정보,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 방학 기간 동안 다녀온 여행의 기록, 소중히 그린 그림, 사진, 만화, 문학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면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변의 소식지 편집위원이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고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CHA PHARM IN> 편집장 이현주
chapharmin@naver.com / 010-4163-7408**

